



동구 인문학당은 오는 6월 1일까지 기획전 '지금 여기 우리 시(詩), 한국시집 모음展'을 진행한다. 당대 대표 시인들의 대표작품집이자 시혼이 담긴 3000여권의 시집들.

한 시대 풍미했던 '우리 詩' 한자리에

‘진달래꽃’,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사슴’, 이들 시집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현대 시를 대표하는 시인들의 작품집이자 국민들이 애송하는 시다. 김소월, 윤동주, 백석, 정지용의 시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또한 이들 작품이 담긴 시집들은 복간이 돼, 여전히 독자와 함께하고 있다.

복간시집을 비롯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채로운 시집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기획전 '지금 여기 우리 시(詩), 한국시집 모음展' (6월 1일까지)이 진행 중인 동구 인문학당에 들어서면 벽면을 채운 수많은 시집들과 만나게 된다.

시인들의 시혼이 깃든 각양각색의 시집들을 보노라면 공자의 '논어' 중 '위정' (爲政) 편에 나오는 말이 자연스레 오버랩된다. '시삼백 일언이패지 사무사' (詩三百 一言以蔽之 思無邪). 즉 시 300편을 읽으면 생각에 거etz됨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이번 전시는 광주 동구가 유네스코 제정 '세계 시(詩)의 날' (3월 21일)을 기념해 기획했으며, 시가 주는 감성과 언어의 묘미를 시민, 독자들에게 나누는

동구 인문학당 6월1일까지 '한국시집 모음展' '진달래꽃'·'문학동네 시인선' 등 3000여 권 윤동주·백석 등 복간시집·한국대표시집 다채



데 초점을 맞췄다.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시집은 모두 3000여 권. 지난 197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도서들은 출판사별, 작가별로 구분해 비치했다. 벽면을 빼곡하게 채운 시집들은 이름만 들어도 반가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작품집들이다.

그 가운데 발길을 불드는 작품집은 절판된 희귀본 외에도 절판본을 다시 출판한 복간본들이다. 이들 시집들은 한국 현대문학사에서 시의 흐름과 대표 시인들의 문학 세계를 보여주는 책들이다.

지난 2006년 1인 출판사인 '소와 다리'에서 출판한 복간시집 '진달래꽃'은 당시 베스트셀러에 올라 주목을 받았다. 이후 '진달래꽃'이 복간됐으며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백석의 '사슴', 정

지용의 '정지용 시집'도 복간본으로 출판돼 인기를 누렸다. 특히 근현대 모습을 고스란히 투영한 편집 방식은 아날로그적 감수성을 자극해 독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했다.

특히 올해는 윤동주 시인이 세상을 떠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광복을 불과 몇 달 앞두고 후궁오카 감옥에서 죽임을 당한 윤동주 시인의 죽음은 문학사적 큰 상실과 연계돼 있다.

광양 망덕포구에 있는 정병옥 가족은 운동주의 유고 시가 보관돼 있던 곳이다. 정병옥이 가족 마룻바닥 아래 보존한 원고는 시간이 흘러 1948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출간됐다.

또한 문학의 관점에서 광주5·18을 알리는데 첨병의 역할을 했던 '5월시 동인시집'도 만날 수 있

다. 김진경, 박몽구, 나종영, 이영진, 박주관, 객재구는 '5월시' 창립동인으로 1981년 '이 땅에 태어나서'를 펴냈다.

동인들이 십시일반 각출을 해 펴낸 제1집은 그렇게 세상에 나왔다. 그리고 제2집 '그 산 그 하늘이 그림자든', 제3집 '땅알아 하늘아 많은 사람아', 제4집 '다시는 절망을 노래할 수 없다', 제5집 '5월'을 발간했다.

그리고 10년 후 제6집 '그리움이 끝나면 다시 걸 떠날 수 있을까'가 1994년에 나왔으며 5·18 40주 기에는 제7집 '깨끗한 새벽' (2020)이 출간돼 화제가 됐다. 현재 두 권의 판화시집을 포함해 동인시집은 9권 세트로 집대성됐다.

이번 전시실에서는 '문학과 지성', '문학동네',

'민음사' 등 주요 출판사들에서 발간한 시집들도 만난다. 또한 시 전문지 '오늘의 시(詩)' 등을 주제별로 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1978년 '나는 바위를 보며 굴리고 싶어진다'를 첫 권으로 시작한 '문학과지성 시인선'은 2024년 4월 600권을 돌파했다. 오랜 세월 동안 시집의 표지 디자인이 그대로인 점도 이색적이다.

'문학동네 시인선'은 기존 시집 시리즈와는 남다른 데가 있다. 드라마 대본집처럼 시집을 가로로 길게 제작했으며 표지 디자인은 단숨미가 눈에 띈다.

조대영 인문학당 디렉터는 "시를 사랑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대감에서 이번 모음전을 준비했다"며 "3000여 권의 시집이 발하는 시의 향기와 감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구 인문학당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서 특별전을 연 3회 선보이며 오는 7월에는 '영화역사 130주년 기념 - 세계영화도서전(展)'을, 10월에는 '빨강머리 앤 도서전(展)'을 펼칠 예정이다.

/글·사진·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억압과 탄압에 굴하지 않는 '광주 정신'을 쓰다

서예가 박종화 오월초대전, 30일까지 갤러리생각상자

노래로, 시로, 붓글씨로 창작의 불꽃로 터지는 민중가수 박종화.

그는 20대부터 민중시위 현장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노래를 만들고 부르며 아스팔트위에 있었다. 그리고 투쟁현장과 싸움터에서 성정이 거칠어진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붓을 들었다. 더 자유롭게 위해 화선지 위에 먹물을 붓에 묻혀 호흡을 가다듬고 일필하고 나면, 답답했던 체증과 분노가 가라앉았다. 그에게 노래는 호흡이고, 시는 노래였다. 붓글씨는 호흡이고, 눈으로 듣는 노래였다.

갤러리생각상자(관장 주홍)에서 '자유 그리고 사유'를 주제로 박종화 서예가의 전시가 진행중이다. 오월초대전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관객들을 맞는다.

주홍 관장은 "박 작가의 여러 전시회 중 지난 2023년 국회의원 회관 로비에서 한글 소나무 대작 전시를 했던 기억이 남는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박 작가는 그동안 순탄치 않은 삶을 살았다. 평범한 학생이었던 그는 1982년 전남대 신방과에 입학하면서 드라마틱한 삶을 살게 된다. 전대협 통일결사대 시위사건으로 구속됐으며, '박종화 창작곡'

1,2,3집 발표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붓글씨를 쓰게 된 계기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불현듯 떠오른 어릴 시절 기억 때문이었다. 그에 따르면 아버지가 쓴 글씨를 자신이 따라서 쓰면 아버지가 10원씩을 주셨다. 그때의 행복한 기억이 붓글씨 작업으로 이어진 것.

그에 따르면 노래를 만들고 시를 쓰고 서예를 하는 과정은 불현 듯 찾아온다. 일상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공간의 사건을 마주할 때, 삶의 전 과정이 내면에서 울려퍼질 때, 그 순간의 영감과 깨달음이 작품으로 전이된다.

"노래할 때 나는 자유"라는 작품은 역동적이며 무한한 자유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글씨에서 응축된 삶에 대한 의지와 사유의 깊이가 배어 드러워져 있다. '영원하라 광주여'는 지난 12·3 비상계엄과 맞물려 울림을 준다. 광주시민들의 자유에 대한 열망, 어떤 억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광주정신이



‘영원하라 오월 광주여’

배면에 드러워져 있다.

전시와 아울러 박 작가의 시집 '치밀한 빈틈' (문학동네)이 발간돼 전시 의미가 더욱 깊다. 김해화 시인은 "나는 박종화의 분노에 동의한다. 슬픔에 동의한다. 사랑에 동의한다"고 평했다.

한편 주홍 관장은 "오월 특별전시를 통해 세상의 부조리한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시인이자 노래를 만들어 부르는 가수, 그리고 민중서예가 박종화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며 "‘자유와 사유’의 세계에서 깊은 숨을 함께 쉬고 내면의 공명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

더블베이스 재발전...성민제·라이징스타 앙상블

6월 26일 아트스페이스 흥학관

묵직한 저음 속에 감춰진 화려한 선율. 더블베이스가 주인공이 되는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

'성민제 더블베이스 연주회-Classic&Rising'이 오는 6월 26일 오후 7시 30분 광주 동구 광산동 아트스페이스 흥학관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무대는 더블베이스 솔리스트 성민제와 한국 클래식계를 이끌어갈 라이징 스타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앙상블 무대로 꾸며진다. 이예진·권현창·유진호·임수빈 등 젊은 더블베이스리스트 4인과 피아니스트 박다솜이 협연자로 나서 5대의 더블베이스와 피아노가 빛어내는 이색적인 조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더블베이스는 흔히 오케스트라의 그림자처럼 인식돼왔지만, 성민제는 이 악기를 주연의 자리에 올려놓은 연주자다. 독일 슈페르거 콩쿠르, 러시아 쿠세비츠키 콩쿠르 등 세계 3대 더블베이스 콩쿠르 중 두 곳을 석권하며 일찌감치 국제 무대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공연에서는 기존의 음역을 넘어서기 위해 현을 5도 가량 높게 조율하는 '하이슬로튼' 기법을 활용, 한층 섬세하고 화려한 속주를 선보인다. 깊고 묵직한 울림의 더블베이스가 바이올린과 비올라, 첼로의 음역까지 넘나들며 악기의 한계를 허무는 모습은 더블베이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실험이자, 젊은 연주자들의 패기와 열정이 빛나는 무



성민제

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시니의 '첼로와더블베이스를 위한 이중주', 쿠세비츠키 '더블베이스 협주곡' 등 더블베이스의 매력과 활력을 만끽할 수 있는 곡들은 물론 마스네의 '타이스의 명상곡', 바흐 'G선상의 아리아', 몬티의 '차르다시' 등 시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객의 감성을 두드린다.

공연을 기획한 김주상 흥학관 음악감독은 "성민제와 젊은 연주자들의 에너지가 더블베이스의 매력을 완전히 새롭게 전달할 것"이라며 "대중과 클래식 애호가 모두에게 감동과 재미가 가득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석 3만 원, 티켓링크 예매.

/정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5월 죽음을 기억하고 생존의 책임을 사유하다

정영창 작가 '뭇숨' 전…31일까지 예술이 뻥그라운드

무겁고 암울하며 절망적이다. 폭압과 광기에 희생된, 낮이 빠져간 이의 차디찬 몸이 환기하는 것은 80년 5·18의 참상 그 자체다.

정영창 작가의 '산이 된 사람'은 강렬하면서도 무겁고 슬프다. 생명이 끊어진 육체가 화면 중앙에 가로놓여 있고 등 아래에 뚫린 구멍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온다. 전장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참혹한 장면이다. 마치 죽은자가 산자를 향해 80년 5월 그날의 상흔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듯하다.

동구 대인동 예술이 뻥그라운드(관장 이당금)에서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정영창 작가 '뭇숨'전.

이번 전시는 오월민중항쟁 45주년 특별 기획전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죽음을 기억하고 생존의 책임을 사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당금 관장은 "이번 전시 주제는 죽은 자들의 숨까지 살아남은 자가 함께 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80년 5월의 기억을 단순히 기억하는 데서 머물지 않고 기억과 맞물린 의미와 오늘의 우리는 어떤 책무를 견지해야 하는지 묻는다"고 전했다.

목포 출신 정영창 작가는 독일 카셀대학 미술대학에 입학한 이후 뮌헨도르프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동안 그는 전쟁을 비롯해 폭력, 죽음, 생존, 윤리 등의 문제에 천착해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상무관 특별 개방을 앞두고 '검은비' 작품을 설치해 추모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획한 바 있다.

정 작가는 이번 전시에 대해 "죽은 자의 뭇가지 숨을 쉬며 나는 이 숨으로 그린다"며 화폭에 오월의 기억을 담은 의도를 밝혔다.

주제인 '뭇숨'은 '목숨'과 '뭇'의 합성어로 읽힌다. 전자는 생명이며 후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의 감각을 함의한다. 다시 말해 생명과 그 생명을 바친 이에 대한 뭇을 다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의



‘도청 복도’

미로 다가온다.

전시장에는 대형 작품 '꽃 지고 피다'를 비롯해 검은비 연작, 쌀 연작 등 신작 시리즈도 선보인다. 지난 2017년 제작된 '도청 복도'와 '도청 방송실'은 이번에 공개되는 작품들로 옛 전남도청 공간에 대한 오마주 현정의 성격을 지닌다.

'도청 복도'는 무겁고 칙칙하며 한편으로 죽음을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5월 그날의 참상을 고스란히 대변하는 을씨년스러운 풍경은 기다란 '죽음의 통로'로 인식된다. 흑백의 절제된 색감과 깊은 여백, 아스라한 먹의 번짐은 죽음과 그 너머의 시간들을 이야기한다.

깊은 정적에 휩싸인 '도청 방송실'은 당시의 분위기를 실감있게 재현한다. 모든 상황이 끝난 뒤의 방송실은 마치 모든 언어가 증발해버린 진공 실처럼 무거운 침묵만이 흐를 뿐이다. 작가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을 특유의 냉철하면서도 따스한 시각으로 구현했다.

한편 이 관장은 "이번 전시는 일차적으로 5월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해 기획됐다"면서 "광주정신과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오늘의 관점에서 정 작가의 작품은 깊은 사유와 울림을 준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skypark@kwangju.co.kr